

모세가 고별 설교를 시작하다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서기까지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며 살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신명기 1:1~5

찬송 : 450장(통 376,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기억하고 있는 설교가 있다면 나누어 보자.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 머물렀던 모압 평지에 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시작한다. 먼저,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고별 설교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이스라엘이 열 하루면 충분한 길을 40여년이나 긴 시간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밝히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한다.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자기가 앞으로 하게 될 고별 설교의 배경을 설명함과 더불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신명기에서 '기억하라'(remember)와 '순종하라'(obey)는 두 단어가 거듭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움말 :

-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1절):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를 일컫는다 (5절 참조).
- 가데스 바네아(2절): 출애굽 당시 시내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11일만에 이곳에 당도하였고(신 1:2), 여기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명을 파견했었다(민 13:25-26). 참고로,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약 11개월 머물렀다.
-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3절): 이 날짜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암시해 준다 (민 14:33-34 참조).
-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4절): 요단 동편에 속한 강력한 두 나라의 왕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강대국들을 멸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보증과도 같았다 (신 31:4 참조).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신명기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인가요?(1, 3절)

모세가, 출애굽한 후 제 40년 11월 1일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40년 11월 1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민 14:33-34, 도움말 참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광야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해 준다.

2. 호렘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2절)

호렘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다.

▶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처음 받은 호렘 산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열 하루길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움말 참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장소인 호렘 산을 거쳐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세일 산을 거쳐 이스라엘이 최초로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까지의 거리는 불과 열 하루길 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 여기서 모세가 거리를 명시한 의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열 하루길 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야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음을 상기시키 위함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들의 선조들과 같이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열 하루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을 40년이 더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과감히 들쳐내고 발견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실패와 불행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을 경우에 나의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누가 누구를 위해 주신 명령이라고 설명합니까?(3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설명한다.

▶ 모세가 자기가 선포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이 모세의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간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달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와 같이 (살전 2:13 참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 각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자.

4.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시기를 어떤 사건 후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4, 5절)

모세가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죽인 사건 후.

▶ 모세가 고별 설교 하는 시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도움말 참조)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 시점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의 두 강대국과 싸워 이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 모세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이 두 나라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물리칠 가나안 족속들의 예표로 사용한 것이다(신 3:21-22 참조).

참고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멸한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정도로 그 두 나라는 강대한 나라들이었다(수 2:9-10, 9:9-11 참조).

▶ **자신에게 믿음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문제나 사건들을 허락하신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시련은 더 크고 높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의 강대한 두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 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그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는 말씀들 중에서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그 말씀에 따라 살아봅시다.

사람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 순위가 다르다. 우리가 아직도 변화가 없으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죄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의 재료만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두고 수시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때문에 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정직하게 나누어 보고,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자.

2.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과거에 행하셨던 선한 일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다. 그러한 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에 대해 나누어 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과제들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